

## 루티의 악몽: 앤 피트리의 □□거리□□에 나타난 ‘아메리칸 드림’의 해체

안 지 현  
(        )

### I. 들어가는 말

앤 피트리(Ann Petry)의 □□거리□□<sup>1)</sup>는 흑인여성 작가의 작품으로는 미국에서 최초로 백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였으며, 시기적으로 조금 앞서 출간된 흑인남성 작가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의 □□토박이□□(Native Son, 1940)에 비견되는 항변소설(social protest novel)로 받아들여졌다. 피트리가 □□토박이□□의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기 조차 했던 소재로 미국사회를 뒤 흔들어놓으며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라이트에 이어 소설가로 데뷔하게 되면서 게토(ghetto)라는 동일한 배경에 살인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다룬

1) Ann Petry, *The Stree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46)

주 제 어: ‘아메리칸 드림,’ 이데올로기, 허구성, 벤 프랭클린, 전토우, 이중의식, 전복성

**‘American Dream,’ Ideology, fictionality, Ben Franklin, Junto, double-consciousness, subversion**

□□거리□□가 여성관 □□토파이□□로 보인 것은 충분히 근거 있는 평가라 하겠다) 흑인여성 주인공인 루티 존슨(Lutie Johnson)이 비거(Bigger)와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의 폭압적 환경 속에서 가난과 무기력을 겪게 되는 주변적 요인에 의해 살인자가 된다는 점, 각기 뉴욕 할렘가(Harlem)와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South Side)라는 가장 열악하기로 알려진 계토의 적대적인 환경의 희생자라는 점 등의 가시적인 유사성을 염두에 둔다면 □□거리□□가 □□토파이□□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받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했다. □□거리□□는 □□토파이□□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을 뿐 아니라 할렘 르네상스의 창시자 중 한명이자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비평가 앨런 로크(Alain Locke)가 “예술적 성취”(artistic success)를 이룬 작품이라고 극찬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거리□□가 각광을 받은 이유는 사실 라이트가 흑인 문학의 방향성에 끼친 지대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당시 라이트는 「흑인문학의 청사진」 (“Blueprint for Negro Writing”)(1937)에서 기존의 할렘 르네상스 문학의 미학에 반기를 들며 예컨대 조라 닐 허스튼(Zora Neale Hurston)의 □□그들의 눈을 신을 바라보고 있었네□□(*Their Eyes Were Watching God*)(1937)를 흑인 민스트럴(minstrel)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반혁명적인 작품으로 규정한 바, 로크 역시 허스튼 소설은 흑인문화를 구경거리로 전락시키는 민담(folklore)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하면서 □□거리□□의 사실적, 고발 문학적 성격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권운동의 발발과 더불어 1960년대 흑인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고 ‘흑인성’(blackness)을 강조하는 흑인정체성 구축이 가장 우선적인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피트리의 작품은 거의 잊혀져 갔으며, 반면 허스튼의 작품은 흑인 방언과 문화를 뛰어나게 구현하고 있다는 재평가에 힘입어 현

---

2) 가장 직접적으로 □□거리□□와 □□토파이□□의 유사성을 지적한 평자로는 보운(Robot Bone)을 들 수 있겠다. 그는 □□거리□□가 □□토파이□□를 “우아하게 계승한 작품”(eloquent successor to *Native Son*) (21)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주인공 루티를 “여성관 비거 토마스”(the female counterpart of Bigger Thomas)(29)라고 본 몬드(Alfred Maund)의 평 참조.

재 미국 대학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작품으로 자리 잡는 역전된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흥미롭게도 흑인여성문학 비평가들은 흑인성을 담보하는 '흑인공동체'를 흑인문학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미학적 잣대로 삼으며 □□거리□□의 평가절하에 앞장선 격이 되었다. 초기 흑인페미니즘의 대표적 비평가인 크리스찬(Barbara Christian)은 □□거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거리□□는 여주인공들이 세상만사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흑인여성작가들의 소설들과 다르다. 흑인여성을 다루는 대다수의 소설들의 경우, 여주인공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데 궁극적으로 실패하더라도 변화를 시도하는 타인들과의 상호교류나 사회적 기관-교회, 절친한 친구들 가족-과의 접촉이 있다. 이런 점에서 피트리는 흑인문화를 무용하게 보는 항변작가들의 경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Christian, 65)

물론 이와 같은 비판은 라이트가 흑인문화를 흑인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요소로 본다는 점을 비판한 후대 작가 엘리슨(Ralph Ellison)과 볼드윈(James Baldwin)의 견해와<sup>3)</sup>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흑인문화가 전면부상하게 되는 60년대의 흑인문학의 전환기적 시점의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흑인여성문학계 내에서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잣대가 유독 흑인여성문학계 내에서 강력한 비평적 기제로 자리 잡게 되었던 이유는 '흑인공동체 회복'의 문제가 흑인여성문학계에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비평가들은 이와 같은 크리스찬의 지적을 의식한 듯이 □□거리□□를 흑인여성 중심의 문화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왔다. 백인사회에 대한 저항적 도구로서의 흑인문화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이른바 문화주의(culturalist) 비평가들은 이 작품의 주인공이 루티가 아니라

3) 볼드윈의 *Notes on a Native Son*과 엘리슨의 *Shadow and Act* 참조.

민(Min)과 미세스 헤지스(Mrs. Hedges)와 같은 군소 흑인 여성 인물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삶에서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고 대안으로 제시한다. 예컨대 루티가 사는 동네의 상권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백인 ‘사업가’인 전 토우(Junto)와 제휴하여 동네 사창가를 운영하며 부자가 된 미세스 헤지스가 돈밖에 모르는 포주이기는 하지만 백인 사회에서 흑인여자가 돈이 있어야 떳떳이 살아갈 수 있다는 ‘지혜’를 습득한 그녀가 기실 동네 흑인 여성들을 돕기도 하는 흑인 여성 공동체의 구심점이라는 식의 해석이다. 또한 루티가 사는 아파트 관리인인 조운스(Jones)의 동거녀 민도 흑인 점쟁이 데이빗(Prophet David)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 자신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해 온 조운스를 떠나 독립적인 삶을 찾아가는 인물로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sup>4)</sup> 흑인중심적(Afro-centric) 견지에서 점을 치는 행위는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 흑인문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흑인하위문화이며, 흑인점쟁이를 믿고 행동하는 민이 백인신화의 상징인 프랭클린을 모방하는 루티의 ‘반민족적’ 행위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위로 읽히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아들 범(Bub)이 열악한 환경(116번가)-매춘, 술, 도박-의 영향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이웃 흑인여성들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루티가 ‘백인화’된 부정적인 흑인상을 대변하는 반면, 민이나 미세스 헤지스는 백인 사회의 가치관과 거리를 두며 흑인 공동체적인 가치관에서 대안을 찾는 긍정적인 인물들로 보고 있다. 즉 백인 사회에 순응하고 동화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루티보다는 흑인 여성 중심의 세계에서 그 대안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4) 프라이즈(Marjorie Pryse)는 민을 “루티와 상반되는 인물”(serves as Lutie’ foil)이라고 평가하면서 백인 모델인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한 루티에 비해 (흑인) 점쟁이 말을 따라 행동한 민을 더 헤안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한다(125, 127). 프라이즈가 또 한편으로는 미세스 헤지스를 “거리의 물개성적이고 무관심한 전능한 힘”(street’s impersonal and indifferent omniscience)(118)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보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에 반해 민과 미세스 헤지스 모두 흑인공동체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의 정의 가치를 아는 긍정적인 인물로 보며 흑인 여성공동체에서 대안적 가치를 찾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Drake 참조.

하는 것이다.

백인주류사회에 대한 흑인문화의 저항적 가능성을 높이 사는 이러한 독법을 십분 인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평가는 흑인 여성 공동체라는 대안적 가치를 주요 아젠다로 내세우는 일부 흑인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의 시각에서 소설을 켜어 맞추면서 내놓은 해석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우선, 민과 미세즈 헤지스는 루티 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닐뿐더러, 민과 같은 경우 조운스를 떠난 후 만나게 되는 또 다른 파트너인 “쓰레기 장사”(pushcart man)와의 미래가 별반 나올 것도 없다. 또한 무엇보다도 미세즈 헤지스는 루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돈에 집착하며 백인인 전토우와 연대하여 116번가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그녀가 흑인 공동체의 구심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에 가까운 독법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독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흑인공동체’의 구체성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일반화시켜 그 공동체적 성격을 낭만화하며 다양한 정치적 변수들을 사장시킨다는 점이다.

루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와는 또 다른 비평적 지류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그간 다수의 비평들이 벤 프랭클린 모티브에 천착하여 이 작품이 ‘아메리칸 드림’의<sup>5)</sup> 한계를 비판한다는 데 입을 모아왔는데,<sup>6)</sup> 놀랍게도

5) American Dream은 국내 학계와 언론에서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꿈 등으로 지칭된다. 필자는 ‘아메리카’ 자체가 서구유럽의 식민주의 팽창 시기에 고안된 고안물이라고 지적하는 최근 수정주의 미국학 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고안물로서의 ‘아메리카’의 어감을 살리며, 미국예외주의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이데올로기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에서 American dream을 ‘아메리칸 드림’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6) 이러한 해석을 처음으로 제기한 글로는 벨(Bernard Bell) 참조. 또 하나의 대표적인 비평으로는 워스트(Gayle Wurst) 참조. 다른 접근 방식이지만 프랭클린이 여전히 주요 모티브임을 지적하는 글로는 덩글다인(Din Dingleline) 논문 참조. 피트리가 이 작품에서 프랭클린 신화라는 틀을 차용해 자연주의 전통을 확장시킨다고 밝힌다. 국내 논문으로는 「□□거리□□에 나타난 흑인 여성과 미국의 꿈」에서 조애리는 루티를 주인공으로 보면서 작품의 주요 주제를 “미국의 꿈의 추구와 좌절”로 읽고 있으나 결

많은 비평가들은 루티에 대해 일면 동정을 표하면서도 루티가 ‘아메리칸 드림’을 “맹목적으로 추구”(blind pursuit)(Bell, 108)하며 전적으로 내면화한다는 데 동의한다. 루티가 자신의 정치적(성적·인종적·계급적) 입지에 대한 자의식 없이 중산층으로의 계층 이동을 꿈꾸는 부정적인 ‘백인화’된 인물이라는 게 그 불만의 내용이다(Pryse 117, Bell 44). 벤 프랭클린으로 대변되는 ‘아메리칸 드림’을 내면화한 루티가 아무리 자기 계발을 시도하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계층이동을 시도해도 흑인여성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아메리칸 드림’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루티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작가가 ‘아메리칸 드림’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 그다지 새로운 해석은 아니다. 흑인문학을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가 있다면 “생명, 자유와 행복의 추구”의 기치 하에 건설된 미국이란 나라를 추동해온 ‘아메리칸 드림’에서 흑인들이 늘 배제되어 왔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흑인문학이나 비평 내부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담론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sup>7)</sup>

론에서는 피트리가 대안으로 “흑인여성의 자매애”를 제시한다는 앞뒤가 다소 맞지 않는 결론에 다다른다.

- 7) 유예된 꿈(dream deferred)의 전통은 오래된 흑인문학의 주제이다. 이 주제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시로 휴즈(Langston Hughes)의 “유예된 꿈”(Dream Deferred)을 꼽을 수 있고, 60년대 민권운동가 킹 목사(Martin Luther King Jr.)의 “내겐 꿈이 있네”(I Have a Dream) 연설문에서 그 수사학적 정점을 이룬다. 극작가 헨즈베리(Lorraine Hansberry)는 휴즈 시구를 제목으로 한 □□태양 속의 건포도□□(*A Raisin in the Sun*)(1959)를 발표하면서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에서 배제된 흑인들의 실상을 고발한다. 흑인문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의 □□노예체험기□□(*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 (1845)를 시발점으로 지금까지도 ‘아메리칸 드림’은 흑인문학에서 주요 모티브로 변용되어 왔다. 1970년 이후 흑인여성문학의 부흥에 힘입어 ‘아메리칸 드림’으로 대변되는 통합의 가능성보다 흑인공동체 내부의 문제에 천착한 작품들이 더 많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2006년에 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오바마(Barack Obama)의 □□대담한 소망□□(*The Audacity of Hope*)의 부제는 “아메리칸 드림 되찾기에 대한 단상”(Thoughts on Reclaiming the American Dream)인데, 이 책에서 오바마는 흑인문학의 유예된 꿈의 전통선상에서 독립선언문과 헌법에 구현

본고는 피트리의 □□거리□□가 흑인문학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벤 프랭클린이라는 모티브를 차용하여 ‘아메리칸 드림’의 주제를 가장 집요하게 파헤치는 작품이란 점에서 ‘아메리칸 드림’에 주목해온 논의들에서 그 출발점을 찾지만, 과연 루티가 철저히 ‘아메리칸 드림’을 내면화한 부정적인 인물인지 성급히 단정을 내리기 전에 소설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어떻게 다뤄지느냐는 생각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sup>8)</sup> 루티가 벤 프랭클린을 삶의 모델로 삼는다고 요약하기 어려운, 좀더 심층적 고찰이 이루어진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의 논의들이 □□거리□□와 벤 프랭클린의 □□자서전□□(*The Autobiography*)과의 좀 더 면밀한 비교를 통해 프랭클린 모티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보다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을 평면적으로 미국적 자수성가의 전형으로 전제를 삼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작품에서 루티가 프랭클린을 떠올리며 그를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음은 틀림없지만, 그를 결코 긍정적인 전범으로 삼고 있지 않을뿐더러 루티는 자신과 벤 프랭클린의 삶의 간극과 자신의 모순적인 처지를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루티가 ‘아메리칸 드림’의 허구성을 꿰뚫어 보고 있는 두보이스(W.E.B. Du Bois)의 “이중의식”(double-consciousness)을<sup>9)</sup>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

된 미국적 이상의 회복과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책의 엄청난 반향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직까지도 미국인(특히 아메리칸 드림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여겨지는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수사학적 호소력을 갖는 지 알 수 있다.

8) 예컨대 모리슨(Toni Morrison)의 □□푸른 눈□□(*The Bluest Eye*)에 등장하는 폴린(Pauline)은 백인가정에서 하녀로 일하면서 백인들의 가치관을 전적으로 내면화하며 흑인들과 흑인성을 증오하여 딸 피콜라(Pecola)를 정신병자로 내모는 인물인데, 루티가 캔들러가에서 하녀로 일하며 백인들의 가치관을 수용하는 양상은 폴린의 경우와 판이하게 다르다.

9) 두보이스의 “이중의식”에 대해서는 미국인/흑인으로서의 이중적 정체성을 안고 살아야 하는 흑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와는 반대로 바로 그 이중적 정체성 때문에 흑인들은 백인들이 보지 못하는 해안이 있다고 풀이하는 논의도 이루어져 왔다. 필자는 후자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으로는 졸고 「자유에 대한 두 가지 정의: □□노예제로부

점이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버커비치(Sacvan Bercovitch)로 대변되는 신역사주의적 접근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그간 개진되어 왔지만, (백인)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이데올로기성 역시 ‘아메리칸 드림’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전복의 가능성을 오히려 전면 차단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피트리외의 □□거리□□를 버커비치의 이론과 함께 읽어내면서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아메리칸 드림’의 해체는 버커비치가 주장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허구적인 담론이라는 관점을 선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이데올로기적 억압성을 폭로하면서 포섭되길 거부하며 전복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본다.

## II. 흑인여성판 프랭클린?: 미국신화 다시쓰기

중산층 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이론화하여 1980년 대부터 미국문학 비평의 대세로 작용한 신역사주의적 비평의 대표주자인 버커비치의 이데올로기론은 미국문학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sup>10)</sup> 그의 이데올로기론은 ‘아메리칸 드림’의 가능성과 그 가능성의 종말이라는 이전의 논의를 발전시켜 ‘아메리칸 드림’이 역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배 도구로 작용하였는지를 밝혀냈다. ‘아메리칸 드림’은 청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탄가(jeremiad)라는 의식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탄가는 미국의 중산층 부르주아지 주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는 버커비치는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적인 작

터의 해방□□과 □□흑인 민중의 영혼□□」 181-182쪽 참조.

10) 버커비치의 *The American Jeremiad* 서론 참조. 본격적인 이데올로기론을 제기한 글로는 “The Problem of Ideology in American Literary History” 참조. 더불어 수정주의적 시각을 반영한 글 모음집으로는 옐튼(Myra Jehlen)과 함께 편찬한 *Ideology and Classic American Literature* 참조. 이런 맥락에서 버커비치가 새롭게 기술한 미국문학사로는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참조.



용을 하며 중산층 주체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며 이에 대한 모든 저항의 목소리들을 포섭함으로써 지배 도구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주장한다. 버커비치의 이론의 핵심용어는 동의(consensus)와 강화(consolidation)인데,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불복종(dissent)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강화의 단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그가 말하는 불복종이란 중산층의 헤게모니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결국 미국 주류문화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역동성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포섭된다고 주장한다.

루티가 '아메리칸 드림'을 내면화하며 과국에 이른다든 평자들은 주류사회에서 주변화(marginalized) 사람들은 결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없음을 논하지만 이는 '아메리칸 드림'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반해 '아메리칸 드림'이 담론적 구성물(discursive construct)임을 밝힌 버커비치의 이론이 오히려 루티가 겪는 현실을 더 잘 설명해준다. 루티의 나이브함을 비판하는 평자들은 그녀가 하녀로 일하던 찬들러(Chandler)가에서의 루티가 무엇을 배우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며 116번가를 지배하다 시피하는 전토우(Junto)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프랭클린을 연상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루티의 결심을 성급히 프랭클린 신화의 내면화로 단정짓는 것이다. 평자들이야말로 루티의 찬들러가에서의 경험과 프랭클린 신화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며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프랭클린 신화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프랭클린을 액면 그대로 미국적 자수성가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왔다.

루티와 프랭클린과의 관계는 사실 훨씬 더 복잡한 열개로 짜여져 있다. 우선 소설 초반부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며 두 개의 공간이 병치된다. 이러한 시공간적 구조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루티의 시각을 통해 찬들러가 사람들은 프랭클린 신화를 왜곡시켜 오로지 돈에만 집착하는 기괴한 모습으로 희화화된다. 루티의 눈으로 해석되어 전달되는 찬들러가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실상을 보는 독자들에게 루티는 찬들러가 사람들이나 프랭클린 자신보다도 훨씬 더 통찰력 있고 지적인 인물로 부각된다. 또한 현재의 루티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를 해석해 나가지만 과거는 단일한 과거가

아니라 커네티컷에서의 경험과 약 150년 전 필라델피아에서 새 삶을 시도하는 벤 프랭클린과의 과거도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프랭클린 신화도 루티의 해석을 통해 재구성되고 수정되며, 독자들은 루티가 1944년 뉴욕의 게토라는 시공간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미국신화의 허구성을 간파하면서도 자기희생이라는 덕목을 더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꾸리고자 하는 소박한 희망을 읽어낼 수 있다.

남편이 일자리를 잃어 어쩔 수 없이 하녀로 일하게 된 루티는 뉴욕의 자메이카라는 동네에 있는 집과 남편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 온갖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아버지의 다급한 전갈을 받고 루티는 다시 뉴욕으로 내려와 남편과 헤어지고 일단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간다. 하지만, 술과 담배로 소일하는 아버지의 여자친구 릴(Lil)이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한 루티는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독학을 하여 하급 사무 공무원 시험에 붙어 사무직원으로 일하게 된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독립하여 116번가로 오게 되는 것이다.

루티가 아들 뱍과 함께 새 출발을 시도하는 곳은 할렘의 116번가이지만, 루티의 회상을 통해 하녀로 일하던 커네티컷의 찬들러가에서의 과거와 116번가에서의 현재가 병치되어 서술된다. 커네티컷의 호화로운 찬들러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와 할렘가의 열악한 도시환경이 선명하게 대조되면서 일차적으로 미국의 계급구조가 인종적 위계질서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다 더 중요하게는 116번가라는 공간과 찬들러가가 사는 커네티컷이 구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암시된다. 또한 찬들러가의 부의 축적이 종이 제조업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다면, 이들의 물질적 풍요로움은 “종이” 조각이 도처에 날아다니며 그야말로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116가의 남루함에 연루되어 있다.

온갖 종류의 종이조각들이 거리에 뒹굴었다. 공연안내문, 춤과 숙박시설 광고문, 빵 덩어리를 감쌌던 두꺼운 왁스종이, 샌드위치 포장종이, 낡은 봉

투, 신문 등. 바람은 인도의 가장자리를 더듬으며 종이 찌가리를 공중 높이 춤추게 했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던 사람들의 얼굴 속으로 그 종이들은 포화를 퍼부었다. (1-2)

116번가는 가난한 흑인들이 모여 사는 게토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하수구와 같은 곳으로 온갖 쓰레기가 넘쳐나는 곳으로 묘사되며, 특히 챠들러가의 부를 창출하여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능하게 하는 종이는 116번가의 사람들의 통행마저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또한 프랭클린의 아버지가 양초를 만드는 "양초제조업자"(chandler)였음을 감안할 때, 챠들러가가 부의 축적에 성공한 프랭클린의 상징적 후손들이라는 점도 암시된다. 프랭클린의 인쇄업은 단순히 인쇄물을 찍어내어 돈벌이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였을 뿐 아니라 프랭클린 자신의 글을 유포시키는 매체로서의 의미가 컸음에 비해 챠들러가의 종이제조업은 오로지 돈벌이의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이에 반해 루티가 이사 오게 된 116번가에 사는 흑인들에게 "종이"는 프랭클린식의 교육과 자기계발의 상징도, 챠들러가식의 부의 창출의 도구도 아닌, 오로지 파멸을 낳는 억압적인 방해물이다. 이렇듯, 작품의 시작부터 프랭클린 신화는 루티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이 암시되며, 루티 자신도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루티는 과연 챠들러가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 루티가 2년간 하녀로 일하면서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는 돈의 중요성이다.

아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커서 대통령이나 외교관 같은 직업을 갖길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건 부자가 되는 것, 챠들러씨의 말을 빌리자면 "떼부자"가 되는 것이었다. (42-3)

하지만 루티가 챠들러가에서 물질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전적으로 내면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루티는 챠들러가 사람들이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그 외의 삶의 본질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다. 대학교육이야 괜찮은 것이고 그네들이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사업에 있어서는 심지어는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었다. 챌들러씨와 그 친구들은 예일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를 그냥 가볍게, 다들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다닌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사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사업에 관계된 잡지나 신문 외엔 아무 것도 읽지 않았다. (42)

챌들러가의 물질주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루티는 놓치지 않고 눈여겨 본다. 교육을 통한 자기성숙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 프랭클린의 자기계발의 일부였다면, 프랭클린의 후예인 챌들러가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 외양인 물질주의 뿐이다. 또한 동생 조나단(Jonathan)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자살을 하는데도 체면유지에만 급급한 챌들러씨와 그 가족들의 이기심이라든지, 아들 리틀 헨리(Little Henry)를 한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는 챌들러씨와 그 부인의 냉랭함, 그리고 자신을 무조건 “창녀” 취급하며 뒤에서 조심하라고 수군거리는 리틀 헨리 할머니와 챌들러 부인의 친구들을 보며 루티는 백인 사회 이면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며 인종 차별을 몸소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해, 루티는 챌들러 가문을 지배하는 돈의 정신을 일부 흡수할지언정, 이들이 근면함과 성실한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챌들러가를 떠나 116번가에 도착한 루티는 새로운 결심을 하며 자신을 프랭클린이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격려한다.

좀 더 편안한 자세로 짐을 들었을 때 루티는 둥그런 빵이 단단하게 느껴졌고, 즉시 벤 프랭클린과 그의 빵 한 덩어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너와 벤 프랭클린이라고 생각하며 픽 웃었다. 116번가를 거닐면서 하나 꺼내서 먹기 시작하지 그래. 근데 너는 할렘에 있고, 프랭클린은 머나먼 옛 시절에 필라델피아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 그러나 루티는 자신감을 지울 수가 없었고, 벤 프랭클린이 돈 몇 푼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면, 그녀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sup>11)</sup> (63-4 강조는 인용자)

자신도 프랭클린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짧은 생각을 접지만, 사실 루티는 자신과 프랭클린과의 거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의 ‘자신감’이란 ‘아메리칸 드림’이 허구임을 알면서도 루티는 흑인여성이라는 몇 겹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니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그 꿈이나마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자존감’을 의미한다. 스스로에게 “프랭클린처럼 빵을 하나 꺼내서 먹어봐”라고 말하면서도 “너는 할렘에 있고 프랭클린은 머니먼 옛 시절에 필라델피아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라고 루티가 쓴웃음을 지으며 의식적으로 뱀과 자신의 공간적, 시간적 간극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루티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망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허구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생존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 간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자신감’(self-confidence)이란 평자들의 해석처럼 루티가 프랭클린을 철저히 내면화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루티는 자신을 자조적으로 뱀 프랭클린이라고 부르면서 백인남성으로 필라델피아의 낯선 거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했던

- 11) 이 대목에서 피트리는 루티와 필라델피아로 도망친 프랭클린이 빵을 사먹는 널리 알려진 일화를 □□자서전□□에 근거하여 자세하게 비교하고 있다. 프랭클린은 빵 덩어리를 세 개 사서 그 중 두개를 양팔에 끼고 한 개를 씹어 먹으며 누더기를 걸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필라델피아 거리를 활보하다가 자신보다도 못한 처지에 놓여있는 어떤 여인과 아이에게 빵을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루티는 이 장면에서 동정을 받는 여인을 오히려 떠올리며 자신이 프랭클린이 될 수 없다고 느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He gave me accordingly three great Puffy Rolls. I was surpris’d at the Quantity, but took it, and having no room in my Pockets, walk’d off, with a Roll under each Arm, & eating the other... I went for a Draught of the River Water, and being fill’d with one of my Rolls, gave the other two to a Woman & her Child that came down the River in the Boat with us and were waiting to go farther. Thus refresh’d I walk’d again up the Street, which by this time had many clean dress’d People in it who were all walking the same Way.” (27-28)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피트리는 프랭클린 □□자서전□□에서 기술되는 일화들을 치밀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결국 루티가 프랭클린 모델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설 곳곳에서 암시한다.

프랭클린의 낙천적이고 자신에 찬 모습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 거리에서” 종일 아이를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상을 차리는 흑인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의 간극을 느끼며 일종의 비애감을 느낀다.

벤 프랭클린, 저녁준비를 해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왜냐하면 이 거리에 사는 여인네들은 다른 집 살림을 돌보느라 자신들의 가정을 소홀히 한 채 과로와 노동의 무게에 눌려 무거운 발을 끌고 다녔기 때문이다.  
(64-65 강조는 인용자)

이런 점에서 루티가 곱씹어 스스로에게 되뇌는 성공의 의지는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자존감의 표현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루티는 자신과 프랭클린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프랭클린 신화를 수정하고 있다.

루티는 캔들러가 사람들과 그 친구들을 떠올렸다.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그들의 말은 옳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고된 노동이 필요했다. 근면과 자기 희생이. 루티는 이 둘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배운 것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며 열심히 일해야 한나라는 당위는 자신 스스로가 덧붙인 말이다. 더 나아가 몇 겹의 제약 안고 있는 루티에게 성공은 열심히 일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논리로만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자기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희생이라는 덕목은 프랭클린이 전수한 덕목의 일부가 아니고<sup>12)</sup> 그 허구성을 간파한 루티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덕목이다. 루티는 캔들러가에서 하녀로 일할 때부터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가 허구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루티는 두보이스가 말한 이중의식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

12) 13가지 덕목은 다음과 같다: Temperance, Silence, Order, Resolution, Frugality, Industry, Sincerity, Justice, Moderation, Cleanliness, Tranquility, Chastity, Humility. (91-92)

수 있겠다. “벽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루티 자신이 그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자신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41) 즉 루티는 미국 주류사회에서 가장 주변화된 인물인 흑인 하녀로서 백인 사회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이 허구임을 알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기 자신과 아들을 지키고 흑인 여성을 “창녀”로 보는 백인 사회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아메리칸 드림’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III. 루티의 악몽과 ‘아메리칸 드림’의 해체

바로 이런 맥락에서 □□거리□□를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 루티는 벤 프랭클린과 찬들러가로 대변되는 ‘아메리칸 드림’의 허구성을 깊숙이 꿰뚫어 보고 있으며, 백인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흑인 계토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작동해 가는 허구적 담론으로서의 ‘아메리칸 드림’을 비판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리□□는 ‘아메리칸 드림’의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을 비판한 버커비치의 이론을 선취하며 만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리□□는 저항의 목소리들이 ‘아메리칸 드림’의 이데올로기 안에 포섭된다고 결론을 내린 버커비치의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버커비치는 ‘아메리칸 드림’에 도전장을 내미는 모든 텍스트들이 결국은 그 허구적 담론에 포섭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예컨대 흑인문학 텍스트 중에서는 특히 마틴 루터 킹과 프레드릭 더글러스를 언급하며 이들이 미국의 건국신화에 기반한 미국적 가치관이 흑인들에게는 “유예된 꿈”일 뿐이라고 비판을 가했지만, 그러한 비판 역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데올로기 안에 포섭되어 왔다고 주장한다.<sup>13)</sup> 킹과 더글러스에게 일종의 “대표성”을 부여하며 흑인문학사 전반을 일반화하여 그 외의 텍스트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여기서 주

13) 버커비치, “The Problem of Ideology in American Literary History” 644-5쪽, 648쪽 참조.

목해야 할 점은 버커비치의 이론이 ‘아메리칸 드림’의 이데올로기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면 매우 급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론적 틀 안에 작품을 가두며 그 어떠한 체제저항적인 목소리도 이미 포섭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보수적인 목소리로 귀결한다는 것이다.<sup>14)</sup>

그렇다면, 과연 ‘아메리칸 드림’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도 그 어떤 도전적인 목소리도 그 이데올로기에 포섭된다는 버커비치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루티가 살인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소설의 결말에 비추어 살펴보도록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되고 아들 범을 두고 뉴욕을 떠나가는 루티의 파국에 대한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루티의 파국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해서가 아니라 백인 남성이 지배하는 경제, 사회적 구조 안에서 루티가 흑인 여성으로서 상품화될 수 있는 성적 대상(sexual object)으로만 존재의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임이 드러난다. 루티는 ‘아메리칸 드림’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쉐들러와 전토우로 대변되는 백인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힘에 의해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이다.

작품 후반부에서 루티의 삶에 가장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전토우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전토우란 주지하다시피 프랭클린이 조직했던 비밀 조직이었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통해 공공의 선을 추구하며 초기 미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했던 조직으로 원래 초기 미국 사회 발전과 자기 계발이란 이상으로 시작했던 모임의 이름이 현재 116번가에서는 돈벌레와 다름없는 그로테스크한 외모의 백인인 전토우의 이름이 된 것이다. 전토우는 한때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근근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으나 미세스 헤지스에게서 힌트를 얻어 쓰레

14) 본고와 상이한 시대의 작품을 다루고 있지만, 버커비치의 이데올로기론에 대한 유사한 비판으로는 19세기 비주류문학과 문화텍스트를 연구한 파월(Timothy B. Powell)의 *Ruthless Democracy: A Multicultural Interpretation of the American Renaissance* 참조. 파월은 럿지의 소설이 “‘미국’을 ‘동’의 상징으로 보는 버커비치의 비평적 주장을 반박한다”라고 지적한다. (61)



기 수거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근거로 부동산을 사모아 큰 부자가 되기에 이르렀다.<sup>15)</sup> 전토우는 당대 백인 중심사회의 구조적 억압의 체현물로 그려지면서, 미국식 자수성가에 기반 한 물질주의를 대변하는 인물일 뿐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었던 조직의 이름을 딴 인물이라는 점에서 흑인여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미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작가의 깊은 회의가 드러난다. 챌들러가 사람들이 프랭클린의 상징적 후손이라면, 116번가를 직접적으로 착취하고 지배하는 자수성가한 백인 ‘사업가’ 전토우는 기괴한 모습으로 일그러진 프랭클린의 또 하나의 상징적 후예라고 읽을 수 있겠다. 미국의 사회적 제도에 대한 회의는 루티의 아들을 소년원으로 몰아넣는 사건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법이 소년원에 가게 되는 계기는 조운스의 꼬임에 넘어가 우연히 우편물을 훔치게 되어서인데, 미국의 우편제도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 프랭클린임을 상기할 때 루티와 법을 파멸로 몰아가는 힘이 미국의 경제, 정치, 사회 제도의 체현물이자 프랭클린의 후손인 전토우(프랭클린)임을 알 수 있다.<sup>16)</sup>

전토우는 116번가 아파트의 주인이자 “더 전토우(The Junto)”란 술집의 주인이기도 하다. “더 전토우”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116번가 사람들에게 술과 이성과의 만남과 찰나적인 향락을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작품에서 가장 희망적인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루티가 낮에는 사무직으

15) 챌들러가가 116번가를 지배하는 양상은 “중이”의 상징물을 통해서 매개(mediate)되지만, 전토우는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통해 116번가에서 실제적인 힘을 행사한다. 인종분리에 기반 한 불평등한 당대의 주거법(housing law)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묘사는 매우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거법은 1960년대 민권운동으로 압력을 느낀 미국정부에 의해 개선되었으나 미국의 대도시들은 아직까지 사실적인(de facto) 인종분리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 피트리의 빼어난 성취는 프랭클린 모티브와 연관 지어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풍부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

16) 벤 프랭클린은 1737년에 Postmaster of Philadelphia, 1775년에는 Postmaster for the United Colonies, 1775년-1776년에는 Postmaster General로 임명받았으며, 미국 우편제도의 틀을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로 돈을 벌면서 밤에는 “더 전도우”에서 가수로 일해 더 큰 수입을 올려 법과 116번가를 떠나 더 나은 동네로 이사를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는 순간이다. 하급 사무직으로 생활비만 겨우 충당할 수 있는 처지인 루티는 “더 전도우”에서 일하는 악단 단장인 부츠에게 가수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행복감을 느낀다.

노래의 가사를 부르면서도 루티는 전혀 다른 생각을 노래 속에 불어 넣었다. 루티는 거리의 어두운 뒷골목과 누추하고 지긋지긋한 방을 떠나가고 있었다. 법과 함께 미세스 헤지스도,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체념한 젊은 여자들, 비인간적인 조운스가 없는 곳으로 말이다. (222)

하지만 이 조그마한 희망도 전도우에 의해 좌절된다. 부츠와 마찬가지로 전도우 역시 루티를 처음 봤던 순간부터 루티를 가수로서의 쓸모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보며 자신의 정부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아파트의 관리인 조운스가 루티를 겁탈하려한 순간에 미세스 헤지스가 나타나 루티를 구해준 일이 있는데, 이 역시 전도우의 생각을 알고 미세스 헤지스가 조운스에게 경고를 하며 개입했던 것 뿐이었다. 결정적으로 전도우는 자신의 소유인 술집의 악단 단장인 부츠에게 루티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여 루티가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루티가 몸을 팔 수 밖에 없도록(끝내 루티가 굴복하지 않고 살인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지만) 유도한다. 루티를 겁탈하는 데 실패한 조운스가 복수로 루티의 아들 법을 속여 우편물을 훔치게 해 법이 감화원에 보내진 후에 루티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부츠에게 200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데, 돈을 빌리러 갔을 때도 전도우가 부츠와 동행을 해 자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넌지시 암시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전도우의 계약에 의한 것임을 루티는 깨닫게 되며 분노한다.

전도우라는 이름의 사내가 술집도 소유했다. 루티가 노래를 부르고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는 성욕을 채우려는 그 자의 수작 때문이었던 것이다. 전도우는 루티가 자기 친구 미세스 헤지스의 집이나 그와 비슷한 집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한 그녀를 차지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와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422)

루티가 이전까지 프랭클린 신화와 자신과의 간극을 인식하며 비애감을 느껴왔다면, 프랭클린의 화신인 괴기스러운 전도우는 이제 루티를 둘러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파괴적인 힘으로 그려진다. 결국 루티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전도우라는 존재의 전방위적인 힘을 느끼며 자신을 짓눌러온 그 힘에 분노를 느낀다. 전도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도우 것'이 되기 전에 루티를 겁탈하려는 부츠를 향해 루티의 분노는 마침내 분출되고 살인을 이르게 되는 것이다.

평생 쌓여온 분노가 그를 내리치고 또 내리치는 데 가해졌다. 아무 움직임도 없는데도 루티는 부츠를 잊고, 그가 보이지도 않는데도 계속해서 내리쳤다. 먼저, 루티의 분노는 더럽고 숨막히는 거리를 향해졌다. 루티의 눈에 끝없이 줄지은 쇠락한 집들이 보였고, 작고 어두운 방들, 가파르게 이어지는 계단들, 좁고 누추한 복도들, 미세스 헤지스 집에 머물고 있는 갈 곳 없는 어린 소녀들, 남정네들에게 버림 받은 채 산산 조각이 난 집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여편네들. 루티는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내리쳤다..마지막으로, 이제 루티의 손놀림은 더 거세지고 빨라졌다. 이제 루티는 탈출구가 없는 벽으로 둘러 쌓인 궁지 안으로 몰아 넣는 백인 세계와 그녀가 법을 혼자 놔두도록 해서 소년원에 갇히게 한 사건들을 향해 내리쳤다. 루티는 분노의 물결 사이로 소파에 누워 있는 얼굴과 머리를 보며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그를 보며 그것들을 파괴하고 있었다. (430)

백인남성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흑인여성은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고안한 백인남성들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루티에게는 허구일 뿐 아니라 루티를 파멸로 몰아가는 파괴적인 힘이다. 루티가 이 신화를 단지 허구로 파악할 뿐 아니라 그 파괴력을 깨닫게 되어 그 신화의 상징을 향해 온 몸으로 저항하는 행위<sup>17)</sup>는 곧 ‘아메리칸 드림’의 억압성을 고발하며 해체하는 전복적인 행위라고 읽을 수 있다. 엄마가 살인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아들이 소년원에서 풀려나기가 더욱 어려워지리라고 판단한 루티는 아들 범을 버려두고 시카고로 도주하게 되는데, 이 때 루티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했던 말을 떠올린다.

루티가 자신이 만든 원을 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기가 찬 선생님의 고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대체가 말이야, 왜 너네 같은 족속을 가르치라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녀의 생각은 옳았어, 라고 루티는 생각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435-6)

□□자서전□□에서 프랭클린이 제시하는 자수성가의 공식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독서와 글쓰기임을 생각할 때, 루티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내몰리며 결국 살인자가 된다는 결말은 프랭클린 신화의 억압성과 파괴력을 면면히 드러낸다.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랭클린 신화는 자신과 같은 흑인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살인자로서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악몽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루티는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인종구

17) 전토우에게 향해지는 분노를 표출할 때 그 분노가 전토우의 하수인인 흑인남성 부츠에게 실제로 가해진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다. 루티도 작품 초반에서는 흑인여성들을 흑인남성에게 버림받은 가여운 존재라고 여기며 자기 스스로도 남편의 무능 때문에 이러한 처지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루티가 흑인남성을 원망하는 마음은, 흑인남성의 부재와 무능력 때문에 흑인사회가 “정상적”인 백인사회와 달리 “병적”(pathological)인 편모가정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고 비난한 백인주류사회의 비판과 닿아있다. 하지만, 자신의 파멸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토우로 대변되는 백인사회라는 점을 깨닫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루티는 흑인남성을 대신 살해하게 된다.

획선(colorline) 건너편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허구임을 알면서도 필요한 허구(necessary fiction)로 그것을 붙잡았지만,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첸들러가와 전토우로 대변되는 백인우월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capitalistic democracy/democratic capitalism) 체제 내에서 루티의 분노의 표출은 ‘아메리칸 드림’의 전면적인 해체를 촉구한다.

소설은 살인자인 엄마 때문에 소년원에서 풀려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 뉴욕을 떠나가는 루티가 바라보는 거리의 모습으로 끝맺는다.

거리에 조용히 눈이 내려앉았다. 눈은 소리를 잠재웠고, 사람들을 집으로 보냈다. 그래서 거리는 곧 텅 빈 채 조용해졌다. 이 도시의 어느 거리건, 마찬가지로였다. 눈은 인도와 지치고 낡은 건물의 벽돌 위에 쌓이며 찌든 때와 쓰레기와 그 추함을 은밀하게 감추었다. (436)

눈 내리는 도시의 풍경은 백색으로 희칠한 추한 사회의 정경이다. 백색이 전토우로 집약되어 체현되는 백인사회의 억압상과 겹쳐지면서 “은밀하게” 추한 정경을 “감추”고 있는 실상이 언젠가는 “은밀하게” 드러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

####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루티를 나이브한 주인공으로 본 비평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루티는 두보이스의 “이중의식”을 통해 백인사회의 추한 모습과 ‘아메리칸 드림’의 허구성을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다. □□거리□□는 ‘아메리칸 드림’의 허구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 버커비치의 이데올로기론을 선취하며, 더 나아가 루티의 파국과 이에 맞서는 루티의 저항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은 해체되고 그 폭력적 억압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해석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흑인문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흑인공동체를 강조하는 흑인중심적 사고에 기반 한 비평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고 하겠다. 분리주의적 경향에 입각한 문화주의 비평들은 미국 흑인들의 물질 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흑인들의 연대만을 강조하는데, 작품은 오히려 백인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미세스 헤지스와 민을 중심으로 한 연대의 가능성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또한 ‘아메리칸 드림’의 해체를 통해 철저하게 인종이 계급적 위계질서를 결정하는 사회체제 자체에 큰 결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미국신화를 해체하지 않는 인위적인 “흑인공동체” 모색은 결코 흑인여성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제시한다. 또 한편으로 본고는 이 작품이 미국 (백인) 주류 비평을 대표하는 버커비치식의 이데올로기론에 정면 도전한다고 주장하면서 흑인문화와 미국주류비평과의 활발한 상호텍스트성을 촉구한다. 지금까지는 미국 사회에 실재하는 인종 분리적 현상을 반영하듯, “주류”(백인) 미국문학비평과 흑인문학비평이 분리된 상태로 비평계 내에서도 평행선을 그리며 전개되어 왔지만,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문학비평의 인종분리를 넘어서야만 미국 문학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허울 좋은 “통합”이나 소수문학의 계토화에 대한 비판과도 맞물려 있다.

피트리의 작품 □□거리□□에 나타나는 ‘아메리칸 드림’의 해체에 주목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종구획선(colorline)을 매개로 ‘아메리카’와 ‘드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다른 각도에서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상호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한 ‘아메리칸 드림’의 해체와 그 전복성을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현대 흑인 여성작가 헤론(Carolivia Herron)의 소설 □□그 이후로 조니는□□(*Thereafter Johnnie*) (1994)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아메리칸 드림은 세계의 악몽”이라는 전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류정전문학, 흑인문학, 소수민족 문학까지 모두 끌어안은 다문화적이고 포괄적인 ‘미국’ 문학에서의 ‘아메리칸 드림’의 위상과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욱 깊어지리라 믿는다.

### 참고문헌

- 안지현(2007), 「자유에 대한 두 가지 정의:  $\square$ 노예제로부터의 해방  $\square$ 과  $\square$ 흑인 민중의 영혼  $\square$ 」. 신문수 편.  $\square$ 미국 흑인문학의 이해  $\square$ , 한신문화사, 168-187.
- 조애리(1997), 「 $\square$ 거리  $\square$ 에 나타난 흑인 여성과 미국의 꿈」.  $\square$ 미국학논집  $\square$  29, 1, 161-176.
- Baldwin, James(1984), *Notes on a Native Son*. Boston: Beacon Press.
- Barrett, Lindon(1999), *Blackness and Value: Seeing Double*. Cambridge: Cambridge UP.
- Bell, Bernard(1985), "Ann Petry's Demythologizing of American Culture and Afro-American Character." *Conjuring: Black Women, Fiction, and Literary Tradition*. Ed. Marjorie Pryse and Hortense J. Spillers. Bloomington: Indiana UP.
- Bercovitch, Sacvan(1986), *Ideology and Classic American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P.
- \_\_\_\_\_ (1994),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P.
- \_\_\_\_\_ (1987), *The American Jeremiad*,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_\_\_\_\_ (1986), "The Problem of Ideology in American Literary History," *Critical Inquiry*, 12:4, Summer, 631-653.
- Bone, Robert(1958), *The Negro Novel in America*. New Haven: Yale UP.
- Christian, Barbara(1980), *Black Women Novelists: The Development of a Tradition, 1892-1976*, Westport: Greenwood Press.
- Dingledine(2006), "It Could Have Been Any Street": Ann Petry, "Stephen Crane and the Fate of Naturalism." *Studies in American Fiction*. 34, Spring, 87-107.
- Drake, Kimberly(1998), "Women on the Go: Blues, Conjure, and Other Alternatives to Domesticity in Ann Petry's *The Street* and *The Narrows*." *Arizona Quarterly* 54:11, Spring, 65-95.
- Ellison, Ralph(1995), *Shadow and Act*, NY: Vintage International.
- Franklin, Benjamin(1986), *The Autobiography*, New York: Penguin.

Locke, Alain(1947), *Phylon* 8, 14-28.

Maud, Alfred(1954), "The Negro Novelist and the Contemporary Scene." *Chicago Jewish Forum* 12, 28-34.

Morrison, Toni(1979), *The Bluest Eye*, London: Chatto and Windus.

Petry, Ann(1946), *The Stree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Powell, Timothy B.(2000), *Ruthless Democracy: A Multicultural Interpretation of the American Renaissance*. New Jersey: Princeton UP.

Pryse, Marjorie(1985), "Pattern against the Sky": Deism and Motherhood in Ann Petry's *The Street*." *Conjuring: Black Women, Fiction, and Literary Tradition*. Ed. Marjorie Pryse and Hortense J. Spillers. Bloomington: Indiana UP.

Shockley, Evie(2006), "Buried alive: gothic homelessness, Black women's sexuality, and (living)death in Ann Petry's *The Street*." *African American Review* 40:3, Fall, 439-460.

Wright, Richard(1997), "Blueprint for Negro Writing." Eds. Henry Louis Gates Jr. and Nellie McKay. *The Norton Anthology of African American Literature*, NY: Norton & Company.

Wurst, Gayle(1994), "Ben Franklin in Harlem: The Drama of Deferral in Ann Petry's *The Street*." *Deferring a Dream: Literary SubVersions of the American Columbiad*. Eds. Gert Buelens and Ernst Rudin. Boston: Base.

원고 접수일: 2008년 월 일

게재 결정일: 2008년 월 일



## ABSTRACT

---

This paper is an attempt to re-evaluate Ann Petry's *The Street* in light of the recent culturalist readings of the text that read Lutie as a negative character who has internalized the 'American dream' and suggests that the black women's community comprised of Mrs. Hedges and Min should be viewed as an alternative to the hostile white society. The paper argues that contrary to this negative characterization, Lutie does not internalize the 'American dream' and furthermore, is very much aware of the fictionality of the discourse of the 'American dream.' Lutie, who perceives the fictional nature of the 'American dream' embodies the Du Boisian double-consciousness. In this context, Sacvan Bercovitch's assertion that 'American dream' is an ideological construct is much more useful in reading Petry's *Street*. In fact, the text can be read as a theoretical precedent to Bercovitch's theorization of the critique of the 'American dream.' This paper goes on to demonstrate that through the figure of Junto who symbolizes the oppressive nature of capitalistic democracy in white America, the text deconstructs the 'American Dream' by fundamentally questioning the validity of capitalistic democracy as a workable system for black women in the 1940's. The text suggests that the system of democratic capitalism is deeply flawed by showing the destructive forces brought on by the disfigured character Junto who embodies both white control of capital and the spirit of democracy gone awry. In this way, *The Street* refuses to be contained but rather subverts the existing order, compellingly contesting Bercovitch's argument that all narrative challenges to the 'American dream' are already and always contained.